

● 특집 ●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여행'

- 관악문화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사례 -



정 선 애
관악문화관도서관 팀장
62skysun@naver.com

●●● 들어가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의학기술의 발달 산물로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 하였다. 핵가족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가치를 상실한 노인들의 소외현상을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고령사회에 도래하여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 서비스의 중심에 서있는 공공도서관의 고령층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인지 재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문화홍수’ 시대를 살고 있으나, 고령의 어르신들 대부분은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역시 어린이와 주부 대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은 매우 빈약하다. 그 원인은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식정보를 제공받고, 문화를 향유하며, 편안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 어른들이 도서관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도서관이 어른들을 찾아가자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노인/장애우열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대활자본, 컴퓨터, 실물화상 확대기, 돋보기, 보청기 등 어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들을 비치하고 있으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른은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두세 분이 전부다.

관악구에는 109개의 공·사립 경로당이 있다. 대부분 훌륭한 건물과 시설은 갖추어져있으나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빈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주 한번 실시하는 '맷돌체조'와 지역에 따라 '노래교실' 정도가 있을 뿐이다. 어른들은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 대부분을 화투 놀이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누워계시는 등 무료하게 지낸다. 어른들에게 훌륭한 경로당 시설도 필요하지만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주고,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도서관을 찾지 않는 것은 어른 대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 건강상의 문제, 문맹 등의 이유로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9 문학관,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사업을 계기로 "어른들이 도서관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도서관이 어른들 계산 곳으로 찾아가자"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경로당 어른들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여가시간 활용 뿐 아니라 두뇌활동을 도와 정신적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 제공과 잠재이용자 계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였다.

대한노인회 관악구지부의 추천을 받아 경로당을 선정하고, 문학 프로그램 첫날,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함께 즐겁게 진행 해나가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어른이 "도서관에서 여기는 뭣 하러왔어? 학생들도 없는데" 하신다. 도서관이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자신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어른들로서는 당연한 말씀이다.

●●● 경로당 어른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여행'

2009년에 우림경로당과 서원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른들과 '함께 책 읽기'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우림경로당, 원당경로당, 신사경로당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을 시작하였다. 신사동에 있는 서원경로당은 지난해 일주일에 두 번씩 '함께 책읽기'를 하면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음해에도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되면 꼭 함께 할 것을 약속했었지만 경로당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공사관계로 올해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없게 되어 어른들도 아쉬워하고, 도서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여 안타깝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연령층은 최연소가 70세가 넘었고,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어 70대는 새댁이라 할 정도이다. 평소 책과 인연이 없으신 분들이라 집중이 안 되고,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어 시작은 쉽지가 않았다. 어르신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 글을 읽을 수 없거나, 한글을 모르는 분, 귀가 안 들리는 분 등 많은 분들이 책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들 스스로도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 없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르신들 특징이 대부분 얼굴에 표정이 없고,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편이라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으나 운영 4주정도 지나자 점차 적응해 갔다.

프로그램은 '책 읽어주기'를 위주로 하였으나 어르신들은 집중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책 읽어주기', '시 감상', '시 짓기', '동요(가요)부르기', '스토리텔링'을 함께 진행한다.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에 함께할 도서는 주제가 최대한 어르신들의 정서와 맞고, 삶과 관련된 친숙한 내용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희생적 삶에 비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옛날이야기나 전래동화를 들으면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다른 옛날이야기나 전래동화로 이어져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서 표정이 없던 분들이 프로그램 내용과 함께 웃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적응해 갔다.

서원경노당의 어르신 중에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집에서 손자의 동화책을 읽고 경로당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고, 신사경로당에서는 아들이 선물한 『이야기 명심보감』을 가지고 와 내용이 너무 좋아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는 강사에게 건네주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직접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책 읽어주기에 적극 참여 하였다.

시 낭독을 권하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보여 못 한다고 겸손하게 사양하던 분도 기꺼이 참여하고, 시낭송 CD를 듣거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들을 때는 사뭇 진지하였다.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경로당에 두고 볼 수 있도록 두고 가라고 한다.

동요를 부를 때는 모두 60~70년 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처럼 즐거워한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사진첩 같다. 어릴 때 즐겨하던 민속놀이, 생활풍습 뿐 아니라 일제 침략기에 겪었던 일,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일 등등 요즘세대들이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경험담을 생생하게 얘기하며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책에서도 얻을 수 없고, 이분들의 세대가 끝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생생한 역동의 세월 그자체로 기록을 남길 수 없음이 안타까울 정도이다.

시 쓰기는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한 구절씩 얘기하고 작가가 받아 적어서 정리하면 훌륭한 시 한편이 완성된다. 시 구절은 당신들의 생활이나 살아 온 세월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시 한 편, 한 편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어르신들 삶 자체이다.

처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어르신들의 특성상 소극적이라 일방적인 '책 읽어주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진행하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책 읽기'가 되었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제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으로 하였다.

‘어르신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우리들의 선입견이 그분들에게 도서관이나 문화라는 단어와 더욱 괴리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원당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책읽기



▲신사경로당 어르신들 시낭독



▲원당경로당에서 정숙지(시낭송가)의 시낭송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 처음 시작할 때 “다 늙어서 공부는 해서 뭣 하느냐”고 화를 내시면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글을 모르셔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어려워했던 지난 세월을 풀어놓게 되고,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속마음도 내 비추며 학습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글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라도 쓸 수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 걸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한글과 숫자를 가르쳐 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주문하신다.

그 옛날에 자신들이 딸이라는 이유로 글을 못 배운 묵은 한을 토로하시는데 어르신들의 한을 듣다 보니 할머니들의 삶이 문학의 한 장르 같다. 2009년에는 서원경로당과 우림경로당 어르신들 한글 공부를 위하여 돋보기를 지원하고 서원경로당에는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 연필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였다. 그 후 서원경로당에서는 화이트보드에 쉬운 노랫말 가사나 시를 적어두고 오며가며 한글을 익히는 분들이 계신다.

●●● 고령사회에 삶에 대한 가치추구와 행복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이니 ‘문화 향유’ 등의 가치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즐기고,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서 책을 읽고 와서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할머니가 계시고, 한글 배우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이며 효과라고 본다.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에 참여하면서 모처럼 가지게 된 문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속적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원봉사는 활동능력이 있고, 동화구연이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활용한다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 특성상 자신들의 행복한 삶과 여가를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개발하거나,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아갈만한 의지는 매우 약하다.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한다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삶의 가치 추구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맺으며

라디오에서 어느 방송인이 “늙는다는 것은 감탄사를 잊어버리는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공감이 간다.

어르신들께 불편하신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라고 부탁드렸더니 도서관에서 나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행복하데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소박한 대답을 하신다. 어느 어르신은 가정에서 자식들 눈치보야하는 쓸쓸한 어르신들이 많으니 국가에서 집을 지어 함께 모여 살도록 배려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꼭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신다.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여행’에 함께하신 어르신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삶의 가치를 찾아 가정과 사회에서 당당한 어른이 되시고, 감탄사를 잊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란다. ㉞

<힘이 되는 사람>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 얘기하고
김미희 받아 적고 정리함

어제도 딸이 경로당에 찾아왔지, 엄마 보러.
오이소박이랑 비타500을 사두고
경로당 할머니들 같이 잡수라고
대학도 못 보냈지만 항상 위위가 되는 딸이지.

내가 아프면 아들, 며느리가 와서
먹고 싶은 게 없는지 물어봐서 사주고
병원 데려가고 그러지.
나는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 등에 다 업혀 봤어.

나는 막내아들네 손자를 4살 때부터 키웠는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바빠?
그래도 학교 늦게 가는 날은
"할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그러고 청소를 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뿌듯한지 몰라.
-중략-

여든넷이지만 그런 남편이 있어서 난 외롭지 않고 좋아.
밥 꼬박 꼬박 차려주는 건 귀찮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위위가 되지. 아만!

<접어야 한다>

신사경로당 할머니들 얘기하고
김미희 받아 적고 정리함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접어야 한다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접어야 한다.
듣기 싫을 때 남이 지저귀는 말 싫지만
접어야 한다.
영감에게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접어야 한다
접어야 편하다.
영감님이 보고 싶어도 몇 십 년째 접고 산다.
접고 접고 또 접고
한평생 접고 산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한 생을 접는다.

<당신>

원당경로당 할머니들 얘기하고
김미희 받아 적고 정리함

- 생략 -

5. 결혼하고 20일 만에 군에 가서 5년이 지나도록 시집살이 말도 못했죠.
5년 지나 애를 낳았다고 큰집에서 상으로 준 닭 한 마리가 새끼를 치고 쳐서
송아지가 되고 암소가 되고 암소가 트럭이 되어 그 트럭 타고 우리 서울로 이사 왔죠.
그렇게 우리 당신과 살았어요. 시집 한 권으로 모자랄 우리 이야기 당신 알고 계시지요?
6. 술만 들어가면 열흘이고 밤을 안 잠수면 당신.
가끔 어림처럼 물었죠? 사랑하냐고?
입 다물고 있으면 대답하라고 해서 사랑한다면 얼마큼 사랑하냐고 묻던 당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해야 밤을 먹었던 당신
세상에서 화내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던 당신
나는 당신이 제일로 무서웠답니다.
7. 늘그막의 어느 날 당신이 물었죠?
내가 죽으면 따라올 거냐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몇 하리 따라가냐고?
속에 없는 대답 했는데 얼마 후 정말 저 세상으로 간 당신
8.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밤을 준비해 놓았던 당신
눈 감기 전 당신은 그랬어요.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가서 서운하다고
20년이 지났건만 사랑했던 그 시절 생각합니다.
9. 낱낱 돌이 만나 보이지 않는 정을 두고 싶었던 우리 부부라는 인연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당신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말했지만
말로 풀지 못할 사연 남치고 남쳐서 가슴 깊이 쌓아둔답니다.
당신, 네 사람으로 만났던 당신, 진정 사랑합니다.

⇒ 이번호 '인터뷰'는 지면관계상 쉽니다.